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조중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39호 [루체 제23091호] 주제99 (2010)년 5월 19일 (수요일)

위대한領導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領導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아들여나가자!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께서 혜산시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혜산시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총공격전을 전두지휘하시며 련일 불굴주주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는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혜산시는 이날 풀없는 감격과 환희로 세차게 끓어번지고 있었다.

조선로동당 빙강도위원회 책임비서 김희택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 부장들인 김경희동지,

장성택동지, 제1부부장들
인 주규창동지, 리제강동
지, 국방위원회 국장들인
현철해동지, 리명수동지가
동행하였다.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혜산시당위원회 책임비서
장용석동지를 비롯한 도와
시, 기관, 기업소의 책임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혜산시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뜻깊은 10월의 대축전을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할 불리는 일념을 안고 생산과 건설에서 전례 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 있다.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먼저 혜산시의 패공정마루에 세워진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중심으로 하는 기념탑의 군상들과 혁명사적비를 돌아보시고 우리 수령님이시야 말로 주체의 혁명적 가치를 높이 드시고 항일대전을 승리의 한길로 조직령도하

시여 조국해방의 역사적 위업을 안아오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불세출의 위인 이시라고 하시면서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빛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혜산강철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충천한 기세로 경제강국건설에 떨쳐나선 공장의 로동계급은 철강재 생산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고 있다.

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지방의 풍부한 원료에 의거하는 주체철생산체계를 확립한 결과 철강재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릴수 있는 훌륭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전경도 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강철직장, 압연직장을 비롯한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공장의 로동계급이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우리식의 강철생산체계를 굳건

히 확립함으로써 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애국의 구슬땀을 광그리 바쳐가고있는 그들의 로력투쟁을 따뜻이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혜산강철공장은 지방의 크지 않은 금속공장이지만 당시 주체적공업사상을 받들려는 종업원들의 정신상태로 보나 우리식의 야금기술체계의 확립과 공장관리운영에서 보나 굴지의 대야금기지에 놓지 않는 면모를 갖춘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아글라를 애쓰고있는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혜산강철공장은 혜산시를 비롯한 도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을 전망성있게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이미 마련된 생산토대에 의거하여 철강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철광석과 무연탄, 석회석을 비롯한 원료자재를 제때에 충분히 대주기 위한 대책들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철강재를 더 많이 생산보장하기 위해서는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께서 혜산신발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혜산신발공장의 로동계급은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신발생산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혁신개설을 돌아보신 다음 체단직장, 제봉직장을 비롯한 여러 직장들에 들리시여 기술장비상태와 생산실태를 묘해 하시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혜산시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술개건된 현대적인 생산공정들에서 생산된 질좋은 갖가지 신발들을 보시고 이곳로동계급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로동자, 기술자들이 인민에 대한 현신적복무정신을 안고 이악하게 투쟁하여 폭신한 솜장화를 비롯한 여러가지 질좋은 겨울신발들을 많이 생산하여 도내인민들에게 공급해주고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숭고한 애국애민의 정신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앞에 맡겨진 생산공체를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고 있는 비결의 하나는 지난 시기의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여 그 능력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음으로써 생산공정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굳건히 다진데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혜산신발공장이 적은 로력을 가지고 있는 크지 않은 공장이지만 새 기술을 널리 받아들이고 경영활동을 잘하여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진전 살림살이기풍을 거듭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공장의 경험은 모든 공장들에서 기술개건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는 설비, 있는 자재를 가지

고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해 아글라글 노력한다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을 부단히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응변으로 보여 준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생활향상에서 혜산신발공장이 맡고 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생산능력을 부단히 높여 신발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 있게 다그쳐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발전하는 시대적 추세에 맞는 신발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부문에 대한 연구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선진파학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련판된 부문에서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혜산신발공장의

로동계급이 자기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질좋은 신발을 더 많이 생산 공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정숙사범대학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은 후대 육성 문제는 나라의 흥망성쇠와 관련한 중요한 애국위업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침을 심장깊이 새기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투쟁함으로써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책임군들을 안내를 받으시며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의 자랑찬 역사의 갈피마다에 아로새겨져 있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감회깊이 추억하시고 수령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피심속에서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김정숙사범대학은 교원양성의 믿음직한 기지의 하나로 자리났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후대교양을 위해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정숙사범대학이 창립후 지난 수십년간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 나라의 교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한데 대하여 우리당은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정숙사범대학생들이 지난 시기는 물론 오늘도 교육부문에서 핵심적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대학에서 혁명성이 강하고 높은 교육자질을 소유한 유능한 교원들을 많이 키워내여 가장 우월한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대학교직원, 학생들이 당파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쓸어올린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교육방법연구실을 비롯한 대학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교육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모든 교육교양설비들이 갖추어져 있고 규모있게 정리된 구내를 보시고 대학에서 훌륭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학생들을 다방면적으로 준비된 유능한 교원들로 키우고 있는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교직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3 면으로 계속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혜산시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2면에서 계속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정숙사범대학은 우리 당의 믿음직한 교원양성기지이며 후대교육을 위한 원종장이라고 하시면서 대학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학생들을 당과 혁명에 끌없이 충실히 참된 혁명가들로 키우는 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교원은 직업적 혁명

가인것만큼 모든 학생들을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닌 견결한 혁명투사로 키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하기 위해서는 교육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며 교육과 실천을 결합시키고 교수방법을 부단히 개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혁명위업이 힘 있게 추진되고 있는 오늘의 벅찬 현실은 정치 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유능한

면서 후대 교육을 전적으로 맡아 할 교육자들의 육성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랜 기간 대학에서 후대 교육사업에 전심전력을 다 바쳐 나라의 교육발전에 공헌한 공로있는 교육자들을 만나시여 따뜻이 고무격려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무거운 임무를 지니고 있는

김정숙사범대학에 대한 우리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는 크다고 하시면서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이 믿음과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날 혜산시를 돌아보시면서 도시건설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의 판문시인 혜산시를 잘 꾸리는 것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빛내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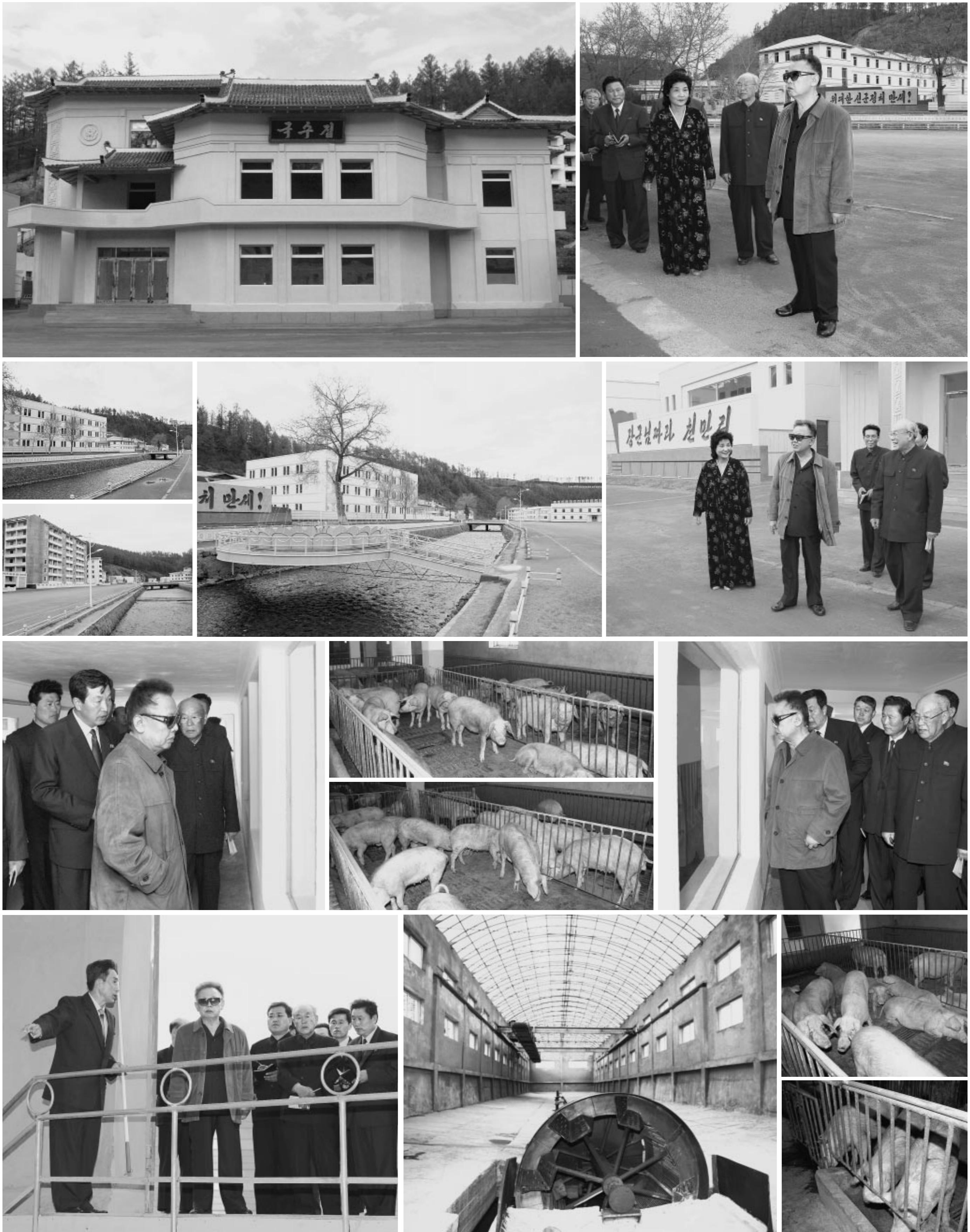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도시건설을 전망성 있게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혜산시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영예로운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킴으로써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빛내여 갈 총성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혜산시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자기 단위의 앞날을 책임지는 확고한 립장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것을 자명으로 하고 있는 일군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오늘만이 아닌 앞으로의 문명한 생활을 끌어내지 책임지고 보장해 주는 것은 너무도 용당한 것이다.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이런 참다운 자세를 지니고 맡은 사업에서 실적을 내고 있는 미미 운 일군들이 바로 배천군 일군들이다.

이들은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헤积累了 위한 오늘에 살 때 대 한 투철한 인생观을 지니고 군내 농사작전과 밭전소 건설, 지방산업공장들의 기술 개진 사업을 통하여 크게 밀고나온 그 바쁜 속에서도 군도서관을 전자도서관으로 홀륭히 꾸려놓은 참으로 좋은 일을 하였다.

군도서관은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홀륭히 꾸려놓은 이들의 경험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 하시였다.

«아름찬 일을 해놓으면 그에 대한 보람도 그만큼 크기마련이다.»

2000여m의 부지면적에 연 1 200여m의 건평을 가진 배천군도서관은 본보기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조건과 환경이 홀륭히 꾸려졌다.

첨단기술센터를 그뿐히 갖추어진 도서관은 건물의 외부와 내부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얼마전 우리는 절로 감탄이 터져 나오는 배천군도서관을 들여보면서 군내 주민들을 위한 천진적 복무정신을 지니고 불같이 투쟁해온 군일군들의 현신

군도서관을 전자도서관으로 홀륭히 꾸린 배천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성에 깊이 감복되게 되었으며 아울러 그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찾아보게 되었다.

군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게 되는 좋은 점은 우선 투철한 미래관이다.

우리가 만나본 군의 일군들은 누구라 없이 군주민들의 생활은 남이 아닌 자신이 책임지고 면 후날에도 순색 없을 문명한 생활을 누려야 한다는

군당위원회의 조직사업은 곧 강화력을 나타내야 한다는

군에 도서관을 전자도서관으로 꾸릴 때 대 한 문제는 봄의 되며 미래에 서는 군내 주민들의 보

이 문제는 초기부터 의견들이 분분하였다. 일부 일군들은 군의 실정에서 시기상조라는 것

일리가 있는 의견이었다. 당시 군에서 당면한 영농문제는 물론 자체발전설건설과 군기초식품공장건설을 비롯한

그리하여 군당위원회 부장 박영철동무를 책임자로 하는

돌격대가 조직되었다.

그러나 책임임일군들은 직업 일군들로부터는

군당책임일군은 물류대의 사업을 매일매일 장악해 하면서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었다.

그러나 책임임일군들은 확고하였다.

군당책임일군은 해당 부서를 발달하여 지식경제시대에 정보

기술을 안겨주며 지역의 경

화와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김정일총비서 동지의 이번 중

국방문은 중조 두 나라 당파

인민들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

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으며 중조관

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천선모임에서는 뮤통제 특명

전권대사가 협약하였다.

그는 김정일총비서 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시는 기간 중국당과 정부, 인

민은 그이를 따뜻이 환대해드렸다. 하였다.

그는 위대한령도자 김정

경찰과 함께 중국당과 정부에

중국당과 정부에 대한 존중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김정일총비서 동지께서는

중국당과 정부에 대한 존중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그이를 따뜻이 환대해드렸다.

그는 그이를

조선은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

태양절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된 17돐, 영웅적 조선인민군 창건 78돐에 즈음하여 브라질, 페란드, 이탈리아, 우간다, 리비아에서 회고모임, 접회, 강연회,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4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행사장들의 명예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전시들 그리고 선군조선의 불폐의 위력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행사장들에 전시되어 있었다.

행사장들은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행사장들은 연설과 발언들이 있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의 현대성 브라질위원회 위원장 주제 및 빠른 알레이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동지는 한세대에 미일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걸 출한 수령이시다.

그이께서는 조선의 강성대국 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조선에서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은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성과 되고 있다.

주체사상연구 편집판 전국위원회 위원장 유하 끼에씨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10대의 어려운 나라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로지 조선인민군의 행복과 번영, 나라의 통일과 세계의 자주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국부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자주시대를 폐지시켰으며 조선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전진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투쟁의 지침으로 되는 수많은 로작들을 친절하시였다.

그이께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앞에 쌓아올리신 거대한 업적은 전보적인 민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이 말리아면 중법적 유물론 무신론자들의 조직 위원장 미리암 벨레그리니 페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려에 일심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날로 악랄해지는 반공화국제동속에서도 경제강국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의 사회주의는 인민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

선군정치는 군사를 국가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는 반제자주의 정치이다. 선군정치에 의해 조선에서는 군대가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와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면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고 있다.

김정일각하의 선군혁명령도 있고 불폐의 조선인민군이 있는 행복과 번영, 나라의 통일과 세계의 자주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국부이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조선의 대답』을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

태양절에 조음하여 파키스탄, 팔리비아, 에티오피아, 망글라데슈에서 토론회가 4월 8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토론회에는 파키스탄민족동자당 판관주위원회, 로조련맹, 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라흐르지부, 팔롬비아강제주제사상연구소, 에티오피아청년주제사상연구위원회 아라자부, 방글라데শ주제사상연구소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파키스탄민족동자당 판관주위원회 총서기는 김일성주석께서는 한평생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번영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시였다고 하면서 주석은 인민을 사랑하고 위하여

시는 천풀을 지니신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였다. 인민에 대한 주석의 현신적인 사랑과 복무정신에 의해 조선땅우에 오랜 세월 인류가 갈망해오던 참다운 인민의 나라가 세워졌다.

조선은 전제 인민이 굽게 풍친 하나의 대 가정으로 되었다고 격찬하였다.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라흐르지부 서기장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 진보적인 민들이 위대한 김일성 주석께서 탄생하신 태양을 듯 깊이 맞아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날을 맞을 때마다 김일성주석의 고귀한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회고하게 된다.

진보적인 유가 김일성주석을 그처럼 못 잊어 하는 것은 그이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조선을 해방하고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로 전진시키였으며 정의와 진보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에게 새 사회건설의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기 때문이다.

김일성주석은 송고한 인력의 귀감이 되었다.

그이께서는 인력정치로 만사람을 굳게 끌어세워 일심단결한 나의 대amoto를 구사하였다.

선군정치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신 김일성주석의 업적은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 조선과 더불어 길이 빛날 것이다.

본사기자

기적을 창조하는 열정적인 인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